

「2020년 한국보험계리사회 주요 의제 사전 조사」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보험계리사회(회장·이재민)에서는 지난 3일부터 쏻 회원을 대상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회원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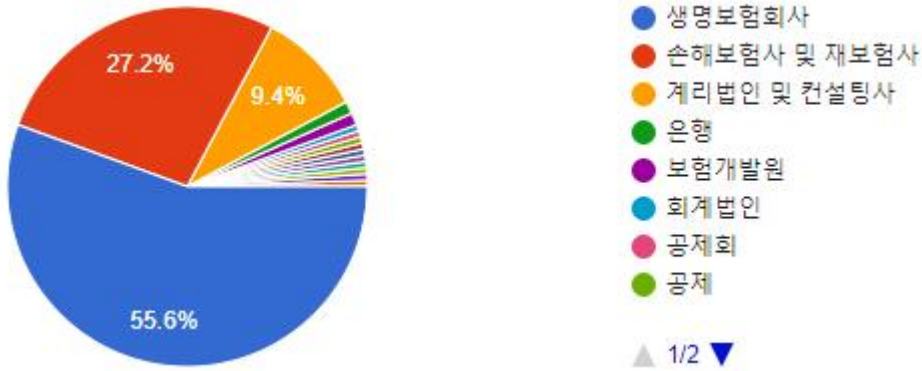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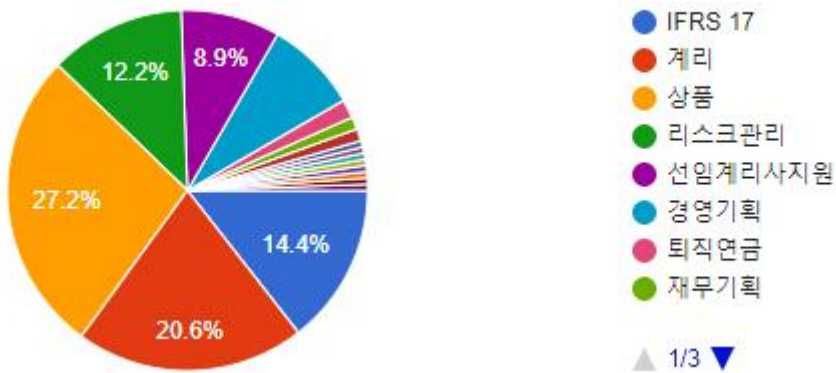
- 설문 조사 : 2020년 한국보험계리사회 주요 의제 사전 조사
- 조사 주관 : 한국보험계리사회 사무국
- 설문 참여 : **180명 (응답률 : 5.52%, 회원 3,259명 대상 실시)**
- 조사 일정
 - 설문조사 실시 : 2020. 8. 3.(월) ~ 8. 14.(금) / 2주간
 - 조사결과 보고 : 홈페이지 및 2020년 9월 뉴스레터 內 보고

[기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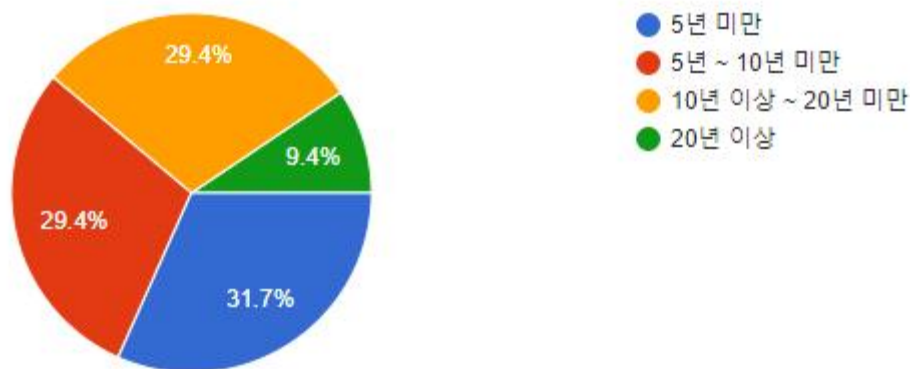
A-1.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주십시오.



A-2. 귀하의 소속 부서를 선택해주십시오.



A-3. 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주십시오.



[의제 1 : 가정관리의 주요 관심사 수집]

목적	본 설문은 회원 여러분의 가정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업계 의견을 수집하여 그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B-1. 경제적 가정 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에서 선택 또는 직접 기입)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확정금리 보험계약에 적용해야 하는 할인율곡선의 산출에 있어서 국내보험시장에서 적용가능한 상향접근법과 하향접근법의 적용 사례	80명 (44.4%)
② 상향접근법에 의한 할인율곡선의 선택에 필요한 국내외에서 획득가능한 금융시장정보의 종류와 적합성 판단의 사례 (RFR, ILP, LOP, UFR, UILP)	42명 (23.3%)
③ 하향접근법에 의한 할인율곡선의 선택에 필요한 국내외에서 획득가능한 금융시장정보의 종류와 적합성 판단의 사례 (Reference Portfolio, RFR, ILP, LOP, UFR, UILP)	34명 (18.9%)
④ 국내 보험상품 유형별 보험계약그룹에 대한 할인율곡선 선택에 있어서 보험계약그룹의 유동성 특성에 부합되는 비유동성 프리미엄(ILP)의 결정 사례	67명 (37.2%)
⑤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적용해야 하는 할인율곡선의 산출에 있어서 다양한 공시이율의 결정방식의 차이를 할인율곡선 또는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기법의 활용 사례	85명 (47.2%)
⑥ 기타의견 1) VFA적용시 할인율곡선을 자산과 부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례 2) ESG 시나리오 검증 및 난수 영향 3) 이외에도 공정가치법 적용 시 위험스프레드 4) 유동성프리미엄산출방법 및 실무사례	

B-2. 계약자행동 가정 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에서 선택 또는 직접 기입)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실효해약율 가정의 선택에 있어서 실효해약율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적용사례 (보험기간, 납입기간, 세금혜택, 영업보수규정, 판매채널, 경과기간, 금리수준, 해지환급금수준 등)	77명 (42.8%)
② 유니버설형 상품의 현금흐름의 주요 요소인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적용 사례	48명 (26.7%)
③ 갱신계약의 갱신율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적용사례 (계약심사, 보험료변경, 계약조건변경, 갱신주기 및 보험기간 등)	71명 (39.4%)
④ 경험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행동 가정의 선택에 활용되는 대내외정보의 획득과 활용 사례 (정합성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의견 포함)	93명 (51.7%)
⑤ 특성이 유사한 보험계약들의 집단에 대하여 세분화된 계약자행동가정 대신 통일된 하나의 가정을 선택하여 IFRS17 원칙에 더욱 부합되도록 의도한 사례	33명 (18.3%)
⑥ 기타 의견 : 없음	

B-3. 가정의 수립에 사용되는 기초데이터 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에서 선택 또는 직접 기입)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계리적 가정의 선택에 필요한 경험을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획득가능한 계약정보 및 기초데이터의 사례	78명 (43.3%)
②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수집하는 기초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게하는 요인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의 사례	67명 (37.2%)
③ 국내외 금융시장의 기초데이터의 수집 경로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리실무의 사례	41명 (22.8%)
④ 보험회사가 사내정보가 아닌 국내외에서 수집한 기초데이터의 정합성의 판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리실무의 사례	44명 (24.4%)
⑤ 보험상품의 프라이싱에 적용한 계리적가정 또는 그 가정의 산출에 활용한 기초데이터와 방법론을 결산시점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여 활용한 사례	77명 (42.8%)
⑥ 기타 의견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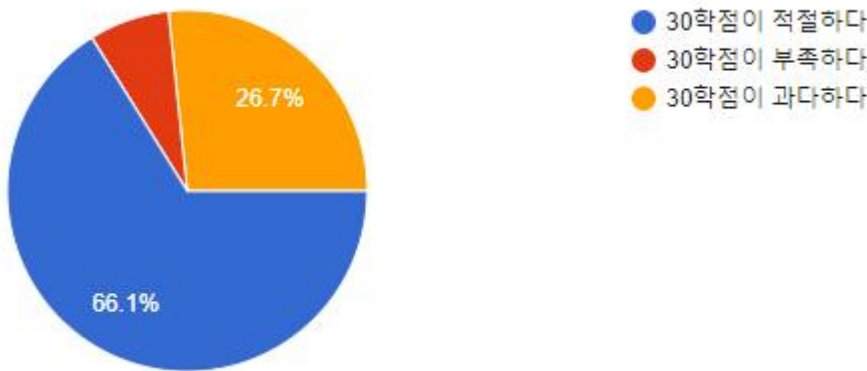
B-4. 가정의 수립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통계처리 업무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에서 선택 또는 직접 기입)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계리적가정의 선택을 위한 경험을 분석 대상 위험의 유형별 세분화 수준과 경험을 분석의 활용 사례	65명 (36.1%)
② 경험을분석에 사용된 기초데이터의 정합성 결여 또는 계리적 가정과의 관련성 부족에 따른 계리적 실무조치의 사례	64명 (35.6%)
③ 경험을 분석의 결과와 미래의 경험율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리적가정을 선택하는 데에 적용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사례	67명 (37.2%)
④ 경험을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계리적가정을 선택하는 데에 질적 또는 양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계리적 실무조치의 사례	64명 (35.6%)
⑤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경험을분석 업무의 수행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례 (분석주기, 경영적조치, 계리적가정의 조정 등)	45명 (25%)
⑥ 기타 의견 : Outlier에 대한 판단 및 일관성 유지사례	

[의제2 : 연수규정 개정 및 교육 관련 의견 수집]

목적	본 설문은 연수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를 활성화하고자 학점 취득 분야를 확대하고, 2020. 3월 오픈한 계리연수원 운영 방향 및 코로나 사태로 일시 중단된 집합교육 재개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C-1. 현재 연수규정상 인정학점은 연간 30학점 입니다. 연간이수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1.1. 연간 30학점 이수에 대한 기타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해주세요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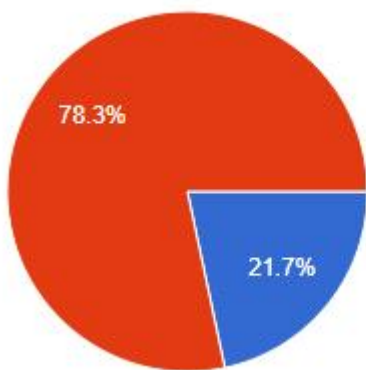
- 1) 단순, 형식적 학점취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운용과 실질적 교육이 필요함
- 2) 시험점수로 제한하고, 숙제가 필요함
- 3) 현업 업무를 하며 이수학점을 채우기 어려움
- 4) 회사에서 인식하는 연간 이수 학점 필요성이 낮음, 대대적인 홍보와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교육이 있으면 함
- 5) 이수학점을 줄이고 필수학점을 올리기
- 6) 학점이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학점이수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
- 7) 활용성 인식 미비
- 8) 직급별, 업무경력별 또는 연령별로 학점취득이 차이를 두는 것도 검토필요

C-2. 한국보험계리사회 外 타 공공교육기관(보험연수원, 대학 등)도 학점이수 인정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타 공공교육기관을 이수 인정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46명 (81.1%)
② 한국보험계리사회 교육만 인정해야 합니다.	32명 (17.8%)
③ 기타 의견 1) 타 공공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계리사회랑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 회계법인의 회계 관련 교육도 인정해야 합니다.	

C-3. 교육이수 인정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교육이수 인정범위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첨부참조)

학점이수 인정범위 (8가지)	1. 교육참석	2. 대학원과정	3. 저술활동	4. 강의활동	5. 학술활동	6. 봉사활동	7. 회원사 교육	8. 계리사회 활동
-----------------	---------	----------	---------	---------	---------	---------	-----------	------------



- 교육이수 인정 활동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이수 인정 활동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C-3.의 ①번을 선택 시 C-3.1.1. 과 C-3.1.2.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3.1.1. 교육이수 인정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까?

(다중선택 가능)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교육참석	4명 (10.3%)
② 대학원 과정	11명 (38.2%)
③ 저술활동	7명 (17.9%)
④ 강의활동	5명 (12.8%)
⑤ 학술활동	5명 (12.8%)
⑥ 봉사활동	14명 (35.9%)
⑦ 회원사 교육	10명 (25.6%)
⑧ 계리사회 활동	6명 (15.4%)
⑨ 기타	

C-3.1.2. 교육이수 인정범위 축소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1) 계리 부문 업무능력 제고와 관련성이 낮음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
- 2) 회원사 교육이 인정된다면 교육 의도가 변질 되는 것이 우려됨, 악용소지
- 3) 실무 부담, 시간부족, 회사원에게 불합리함
- 4) 대학원 과정은 개인 욕구에 따라 듣는 경향이 강해 축소가 필요해 보임
대학원 과정은 객관적으로 학점화하기 힘들다고 봄
- 5) 방만한 운영으로 교육이수의 실효성 저하, 관리 어려움
- 6) 비효율적, 광범위함, 학점 인정폭 과다, 점수비중이 크다

(C-3.의 ②번을 선택 시 C-3.2.1. 과 C-3.2.2.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3.2.1. 교육이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까?

(다중선택 가능)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교육참석	102명 (73.4%)
② 대학원 과정	58명 (41.7%)
③ 저술활동	25명 (18%)
④ 강의활동	37명 (26.6%)
⑤ 학술활동	47명 (33.8%)
⑥ 봉사활동	18명 (12.9%)
⑦ 회원사 교육	46명 (33.1%)
⑧ 계리사회 활동	42명 (30.2%)
⑨ 기타	

C-3.2.2. 교육이수 인정범위 확대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1) 다양한 계리 관련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 2) 다양한 교육 이수 및 참여의 기회 제공
- 3)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다.
- 4) 회원의 보다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 5) 다양성이 부족함. 다른 부분에서 충족 가능
- 6) 교육만으로 30학점 이수가 많다. 이에 인정범위가 늘어나야 한다고 봄
- 7) 교육일정이 안 맞는 경우
- 8) 교육 참석 외적인 부분의 다양한 참석 유도
- 9) 계리사회 활성화 기여

C-4. 연수교육 참여율이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수교육 참여 부진 이유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중선택 가능)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회사 업무 과다 또는 왕복시간으로 인한 참여 어려움	124명 (70.1%)
② 소속회사에서 교육참여 승인을 받기가 어려움	60명 (33.9%)
③ 수강료가 부담이 됨	33명 (18.6%)
④ 교육 콘텐츠가 부족함	32명 (18.1%)
⑤ 기타 1) 콘텐츠의 질 문제 2)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걱정됩니다. 3) 회사간 정보교류활동이 저하됨	

C-5.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사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중선택 가능)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적극적인 홍보	55명 (31.3%)
②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83명 (47.2%)
③ 우수 강사진 섭외	70명 (39.8%)
④ 온라인교육과정 활성화	77명 (43.8%)
⑤ 기타 1) 각 회사의 인식변화, 분위기 조성 계리사회와 회사와의 컨택 부서장 및 임원 차원의 참여 독려 분위기 조성 회사별 인센티브나 패널티 2) 교육이수 의무화 3) 타 기관에서 위탁교육 4) 실무(현업)과 연계된 과정 신설	

[계리연수원 및 교육관련]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리연수원』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수 교육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D-1. 『계리연수원』의 개설예정 온라인강의 과목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응답 가능 /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문항	응답수(비율)
① 보험산업 신지급여력제도 및 관련제도 통합이해 교육	105명 (58.3%)
② 신입사원 대상 교육	34명 (18.9%)
③ 상품기본 교육	65명 (36.1%)
④ 경영관리 교육	48명 (26.7%)
⑤ 생보사 선임계리사 교육	17명 (9.4%)
⑥ IAA Monograph 중 RA(Risk Adjustment) 교육	71명 (39.4%)
⑦ IAA Monograph 중 Discount Rate 교육	67명 (37.2%)
⑧ IAA Monograph 중 Stochastic Modeling 교육	74명 (41.1%)
⑨ 기타	
1) 리스크관리 / 지난 봄에 취소된 보증비용 관련 교육	
2) 손보 계리 교육, RM 교육	

D-2.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소속된 회사에서 외부 집합교육 참석이 가능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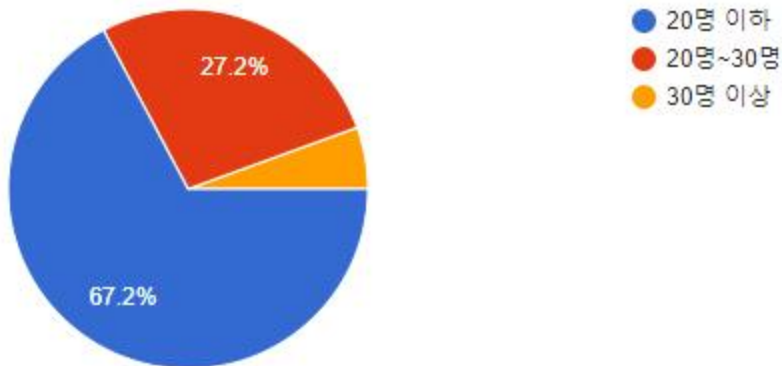


D-3. 코로나19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상황 지속 시, 오프라인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3.1. 코로나19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상황 지속 시,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참가자 수는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강의실 최대 48명 수용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24명 수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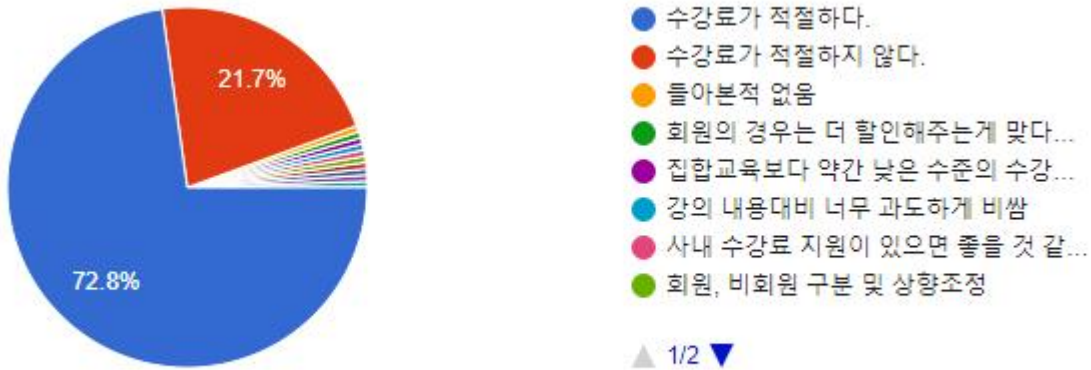


D-4.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온라인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리연수원』 사이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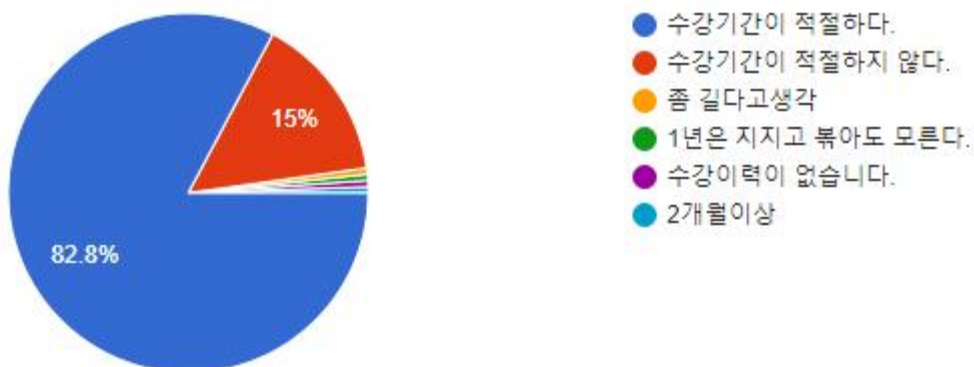
D-5. 『계리연수원』의 수강료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계리연수원 개설기념으로 대표적인 2개 온라인강의의 수강료는 회원구분없이 10만원입니다. 추후 개설강의는 기존 집합교육의 회원별 수강료기준과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D-6. 『계리연수원』의 수강기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알기쉬운 보험연금수리학은 1개월, IFRS17보험회계는 2개월입니다.)



D-7. 『계리연수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좋은 점, 바라는 점, 아쉬운 점 등)

답변

1) 교육과정 다양화 / 다양한 콘텐츠개설 필요

궁금한 주제에 대하여 바로바로 찾아서 들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다양화 필요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서도 여러 강사분들이 필요 - 수준과 적성에 맞도록 소주제별 작은 강의 여러 개 개설되면

2) 적극적인 홍보 및 경영진 컨택 필요

회사에 직접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더 자주하여 교육 시 사내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유인방법을 모색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면 좋겠음

각 보험사의 인사팀과 논의 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하는 노력 필요

3) 강의의 질 향상 / 우수 강사진 초빙 바람 / 업계 인력 강사풀 확대 필요

4) 인별 이수 확인을 위한 시험제도 도입 필요

5) 온라인 접근성 개선

6) 오프라인 강의 개설 요구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